

北 내고향에 설욕 노리는 수원FC 위민

“상대는 강하나 충분히 승리 가능”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하 내고향)과 준결승에서 재회하게 된 수원 FC 위민이 거친 상대에 정면 대응해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각오했다.

박길영 수원FC 위민 감독은 1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2026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준결승 기자회견에 참석해 “축구 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언론을 통해 관심이 쏠린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20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내고향을 상대하는 박 감독은 “우리 개 의치 않고 축구에만 집중하자고 얘기했다. 공동응원단이란 우리 스포터스 든 응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석한 한국 여자 축구 전설 지소연은 “이번 경기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선수들도 얼마큼 중요한 경기인지 잘 알고 있는 만큼 좋은 경기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소연은 “내고향 경기를 봤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많더라.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이라고 할 정도로 전력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한 선수들과 경기하면 굉장히 거칠고 욱설도 많이 한다. 우리 선수들도 물러서지 않고, 욱하면 같이 욱하고, 발로 차면 똑같이 발로 차면서 대응해야”한다고 전했다.

AWCL은 2년 전 AFC가 여자 축구 활성화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출범한 대회다.

아시아 각국 여자 축구 리그의 우승팀들끼리 격돌하며, 우승 상금은 100만 달러(약 15억원), 준우승 상금은 50만 달러(약 7억5000만원)다.

수원FC 위민은 2024시즌 WK리그에서 14년 만에 우승해 아시아 클럽 대항전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수원FC 위민 지소연이 19일 경기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2026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상대 태클·욕설 더 강하게 대응”
20일 첫 방한 내고향과 격돌

이번 대회 본선 C조에선 BFE(미얀마·5-0 승), 내고향(0-3 패), 도쿄 베르디(일본·0-0 무)에 1승 1무 1패를 거뒀고 성적이 좋은 3위 팀 자격으로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수원FC 위민은 8강에서 우한 장다(중국·4-0 승)를 완파한 뒤 준결승에서 내고향과 재회해 설욕전에 나선다.

북한 여자 축구 클럽으로는 처음 방한한 내고향과 수원FC 위민의 맞대결을 두고 범국민적 관심이 집중된다.

남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20여 개 단체는 2026 AFC-AWCL 여자 축구 공동응원단을 결성하기도 했다.

박 감독은 “지난해 11월 미얀마에서 불었을 때 0-3으로 졌다. 지금과 달리 그때는 전력이 조금 약했는데, 선수들이 약간 겁을 먹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반전이 끝나고 심한 소리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다르다. 8강에서 직전 시즌 우승팀인 우한을 4-0으로 잡을 정도로 전력이 좋아졌다. 나와 선수들 그리고 코치진이 서로를 믿

고 임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직전 맞대결을 총성 없는 경기로 돌이킨 박 감독은 “서로 심한 태클과 욱설이 오갔다. 내고향은 강팀이긴 하지만, 수원FC 위민만의 축구로 더 강력히 대응”할 거라고 예고했다.

지소연은 “한국에서 준결승을 치를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며 “유럽축구연맹(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UWCL)를 많이 경험했지만,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마음 가짐이 남다르다”고 전했다.

그는 “상대가 북한인 만큼 관심도 받고 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취재진은 축구하면서 처음인 것 같다. 보여주시 관심 속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장애인 체육 활성화 새 이정표

익산시, 장애인사이클팀 창단 본격 운영... 전북에선 '최초' 안정적 고용·경기력 향상 동시 지원... 원대병원 등과 협력

익산시가 전북 최초 장애인사이클팀을 창단하며 장애인 체육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시는 19일 익산번디비체육센터에서 '익산시장애인사이클팀' 창단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장애인사이클 종목 실업팀은 전국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창단체 눈길을 끈다.

이번 창단은 지난 1월 익산시와 원광대학교병원, 익산시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특히 단순한 선수단 운영을 넘어 장애인 선수의 안정적 고용 환경을 조성

하고, 훈련과 경기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익산시와 익산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기금 확보 등 행정·제도적 기반 마련과 선수단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선수들을 직접 채용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 책임 실천에 나서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는 고용 지원과 전문 컨설팅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시는 이번 창단이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와 선수 복지 향상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진안군 역도선수단, 대한역도연맹회장배 승전보

금 5개 등 메달 총 8개 획득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이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역도 강군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은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충남 서천에서 열린 '제4회 대한역도연맹회장배 전국역도경기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유동주 선수는 95kg급에 출전해 합계 380kg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인상 157kg과 용상 203kg에서도 각각 정상에 올라 금메달 3개를 목에 걸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김정민 선수는 75kg급 경기에서 용



상 187kg으로 1위를 기록해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합계 315kg으로 은메달, 인상 128kg으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요한 선수는 65kg급에서 용상 162kg으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합계 280kg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 순계실업연맹전서 선전

하야시다 리코, 女 단식 우승 등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팀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순창군 공설운동장 실내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2026 순창 순계 실업소프트테니스연맹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실업소프트테니스연맹과 전북특별자치도 소프트테니스 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순창군청 남·여 소프트테니스팀 선수 14명이 출전해 열린 경기를 펼쳤다.

여자 개인단식 부문에서는 하야시다 리코 선수가 결승전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남자 혼합복식 부문에서는 올해 새



롭게 영입된 윤규상 선수가 팀에 빠르게 적응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쳐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윤 선수는 향후 팀 전력 강화에 기여할 유망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체육인 복지 증진·체육관광 활성화... 민간 호텔과 협력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가 체육인 복지 증진과 체육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 호텔과의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체육회는 19일 이비스 스타일 엠베서더 전주 시티센터와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체육인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 체육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북체육회, 이비스 스타일 엠베서더 전주 시티센터와 협약

미련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보 교류를 비롯해 호텔 객실 및 연회장 이용 시 체육인 대상 할인 혜택 제공, 각종 행사 및 프로젝트 공동 참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체육회는 올해 들어 호텔과의 협력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과

의 협약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호텔 협약이다.

이를 통해 전북지역 체육인들의 생활 편의와 복지 수준을 높이고, 지역 체육·관광 산업 간 연계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문병량 전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비스 스타일 엠베서더 전주 시티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돼 뜻깊게 생



각한다”며 “체육을 통해 전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http://council.jinan.go.kr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

진안군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